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Expanding the International Role of Korean Think Tanks

2015. 1. 22.

서울클럽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경제매거진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Expanding the International Role of Korean Think Tanks

일시: 2015년 1월 22일(목) 13:30 - 17:15

장소: 서울클럽 한라산룸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경제매거진 공동

목차

인사말.....	4
행사일정.....	5
참가자 약력.....	8
발표자료	
세션 1.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모색”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모색.....	21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KDI 사례.....	29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세션 2.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39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가?.....	45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인사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경제매거진은 1월 22일(목)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미국 펜실베니아대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TTCSP)’이 매년 조사하는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발표를 계기로 국내 싱크탱크 활성화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TTCSP는 전세계 싱크탱크 연구원, 정부 관계자, 기부자, 언론인, 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인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를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상당 수의 국내 연구기관들이 이 발표의 여러 분야에서 랭킹에 오른 바 있습니다.

이번 포럼을 주최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경제매거진은 국제적 조사결과 발표를 계기로 국내 싱크탱크들이 활성화되어 더 많은 국내 기관들이 국제적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 싱크탱크의 국제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싱크탱크 발전을 위한 국내 기반을 모색해나가고자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일형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이숙종
한국경제매거진 대표 이희주

행사일정

일시: 2015 년 1 월 22 일 (목) 13:30 - 17:15

장소: 서울클럽 한라산룸

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아시아연구원, 한국경제매거진 공동

13:30-13:45 인사말씀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이희주 한국경제매거진 대표

13:45-13:55 James McGann TTCSP 소장 영상 메시지 발표

13:55-14:10 2014 Global Go To Think Tank Report 발표 및 시상

이희주 한국경제매거진 대표

14:10-15:30 세션 1.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모색”

사회: 김세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발표: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토론: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15:30-15:50 휴식

15:50-17:10 세션 2.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사회: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발표: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토론: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양재운 포스코 청암재단 상임이사

강원택 서울대 교수

17:10-17:15 폐회사

참가자 약력

강원택
강은봉
김세원
김준경
박인국
신봉길
양재운
윤금진
이숙종
이원재
이일형
이희주
하태형

(가나다 순)



강원택
서울대 교수

강원택 교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국회의장 직속 남북 화해·협력 자문위원회 부위원장과 통일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지역위원회 분과위원,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을 역임했으며 동아시아연구원 시민정치패널 소장과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분석지원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국정당학회 총무이사과 부회장 및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한국정치학회 연구이사,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2001-2010), 듀크대학교 방문교수(2008-2009)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한국정치, 정당정치, 선거과정 등이 있으며,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편, 2007) 《한국인의 국가정체성과 한국정치》(편, 2006) 등을 저술했다. 강원택 교수는 런던정치경제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 Political Science)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은봉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강은봉 총장은 KDI, KIEP 등 경제·인문사회분야의 23개 국책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무총장에 재직 중으로, 소관 국책연구기관들이 선도적인 국가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1983년 공직에 입문하여,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실 부이사관(2000~2003),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사무처장(2009~2010),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2012~2013) 및 규제조정실장(2013~2014) 등을 역임하였다. 강은봉 총장은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UC버클리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정책학 석사, 동아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김세원
세계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

김세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현재 (사)세계경제사회연구원 (WERI)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 이사장은 33년 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71-2004)로 재직하였으며 동 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 (1995-1996)을 역임했다. 김 이사장은 정보통신정책 연구원 (구 통신개발연구원) 초대 원장(1988-1991), 금융통화운영위원회 위원 (1991-1994), 한국경제학회 회장(2000-2001) 및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S 2008-2011) 이사장 등을 지냈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김준경 원장은 KDI 부원장 및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직을 역임하였다. 김 원장은 개발교육연구실을 창설하여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사례연구사업을 총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개발도상국 정책자문의 유용한 기반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김 원장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 2비서관 (금융비서관)을 역임하였으며, 국무조정실 금융감독혁신 TF 민간위원장으로도 활동하였으며,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직도 수행하였다. 김 원장은 미국 버지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조교수, 콜롬비아, 하와이대학교 초빙교수로 활동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이 주관한 “동아시아의 기적” 프로젝트에 한국의 대표 연구자로 참여하여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의 금융정책의 역할을 분석, 정리하였다. 김 원장의 주요 연구주제로는 한국의 금융감독, 기업지배구조,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협동조합금융기관을 포함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김 원장은 1960년대 후반 한국의 세정개혁, 1970년대의 새마을운동 및 포용적 금융발전이 한국의 경제사회발전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도 깊이 연구하였다. 김 원장은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 San Diego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인국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

박인국 사무총장은 한국고등교육재단 사무총장이다. 박인국 사무총장은 제12회 외무고시를 합격하고 외무부에 입부해 주뉴욕 총영사관 영사(1981),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1등 서기관(1986), 외무부 장관 비서관(1989), 주벨기에 대사관 겸 주유럽연합대표부공사(1999), 주쿠웨이트대사(2003),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실장(2006)과 다자외교실 실장(2007)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 대통령 국제안보 비서관(2002),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2005), 22대 주유엔대사(2008)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주요 국제 관계 활동으로는 제네바 군축회의 의장(2004),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부의장(2008),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부의장(2009), 유엔 환경정상회의(Rio+20) 준비위원회 공동의장(2010) 등이 있다. 박인국 사무총장은 황조근정훈장(2011)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신봉길

외교안보연구소 소장

신봉길 소장은 직업외교관으로서 현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최근까지 한중일협력사무국 초대 사무총장(2011-2013.8)으로 일했다. 1978년 외교부 입부 이래 특수정책과장(1992-1995), 주일대사관 1등 서기관 (1987-1990) 주중대사관 참서관/ 총영사(1996-1998), 공사 (2004-2007) 경수로 기획단 특보(2002-2003) 등을 역임하면서 북한 및 중국, 일본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사무총장 임명 전에는 외교부 대변인(2003-2004), 주 요르단왕국 대사(2007-2010)와 본부 국제경제협력 대사 (2010-2011), 본부 동북아협력대사(2013-2014) 등을 거쳤다. 신봉길 대사는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재학 중 서울대 '대학신문' 학생편집장을 지냈다. 이후 북경대학에서 중국어를 연수했으며,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양재운
포스코 청암재단 상임이사

양재운 상임이사는 포스코청암재단 상임이사이다. 1988년 포스코에 입사해 노무, 홍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포스코가 출연한 포스코 청암재단에서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상임이사를 맡고 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포스코청암상, 포스코아시아펠로십, 청암 Science 펠로십 등을 핵심사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장학, 시상, 학술, 연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윤금진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이사

윤금진 교류이사는 이화여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영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문화관리학 (박물관·미술관경영) 석사, 한양대 문화인류학 박사 (박물관학)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5년부터 1991년까지 한국국제문화협회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교류부장, 출판부장, 한국학사업부장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고, 2005년 한국국제교류재단 문화센터를 개관, 초대 소장을 맡았으며 올 9월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 재단 워싱턴 사무소장을 역임하였다. 국제박물관협의회 (ICOM) 한국위원회 이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관련 자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평가위원 등 다양한 문화행정 및 문화예술 정책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숙중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이숙중 원장은 동아시아연구원 원장과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및 국정관리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이다. 외교부, 통일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정책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Council of Council, Trilateral Commission 등 다국적 정책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해왔다.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동북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대학원(Johns Hopkins University, SAIS) 교수강사, 독일 German Institute for Global and Area Studies 방문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로는 다자주의, 민주주의와 시민 사회 등이 있으며, 한국,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저술로는 《2013 대통령 성공의 조건》(편, 2013),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와 한국》(편, 2012), “South Korea as New Middle Power Seeking Complex Diplomacy”(2012),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in East Asia(공편, 2011)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공동체 구상》(공편, 2011), 《세계화 제2막: 한국형 세계화의 새 구상》(공편, 2010) 등이 있다. 이숙중 원장은 미국 하버드대학교(Harvard University)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이원재 소장은 현재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이원재 소장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슬론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졸업했다. 한겨레신문 경제부 기자로서 활동했고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기업의 사회책임경영과 사회적기업을 연구했다. 한겨레경제연구소를 설립하여 2012년까지 소장으로 역임했다. 경제평론가로서도 활동하며 칼럼, 방송, 강연을 통해 더 나은 사회의 비전을 설파하고 있다. 《소셜픽션, 지금 세계는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공저, 2014), 《이상한 나라의 경제학》(편, 2013), 《이상한 나라의 정치학》(편, 2013), 《이원재의 5분 경영학》(편, 2009), 《한국경제 하이에나를 죽여라》(편, 2007)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이일형 원장은 2013년 8월 제 9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G20 국제협력대사 겸 세르파로서 한국 정부의 G20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중국 지린대학의 객원교수직을 겸하고 있다. 이일형 원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에 임명되기 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3년간 경제학자로 근무하며 세계경제, 특히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시아 지역의 경제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주제는 국제거시 및 금융, 환율, 재정과 통화정책, 성장과 분배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2010년까지 IMF 아시아-태평양국 자문관으로 근무한 데 이어 2010년부터는 IMF 중국 주재 수석대표로서 중국 경제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 이 원장은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화주
한국경제매거진 대표

이화주 대표는 한국외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부터 한국경제신문 신문사 증권부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한국경제신문 신문사 산업부 차장, 증권부 차장, 사장실 부장을 역임했다.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2004), 국장(2005)을 거쳐 이사(2007)로 근무했으며 기획조정실 이사(2007) 등 다양한 업무를 거쳤다. 2013년 한국경제매거진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며 현재 대표로서 활동 중이다.





하태형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

하태형 이사는 2014년 4월부터 현대경제연구원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보아스투자자문 대표이사와 수원대학교 금융공학대학원 원장을 역임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현대그룹의 싱크탱크로서 한국 경제의 선진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하태형 대표이사는 뉴욕주립대(State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발표자료

세션 1.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모색”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모색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모색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01. 싱크탱크의 국제화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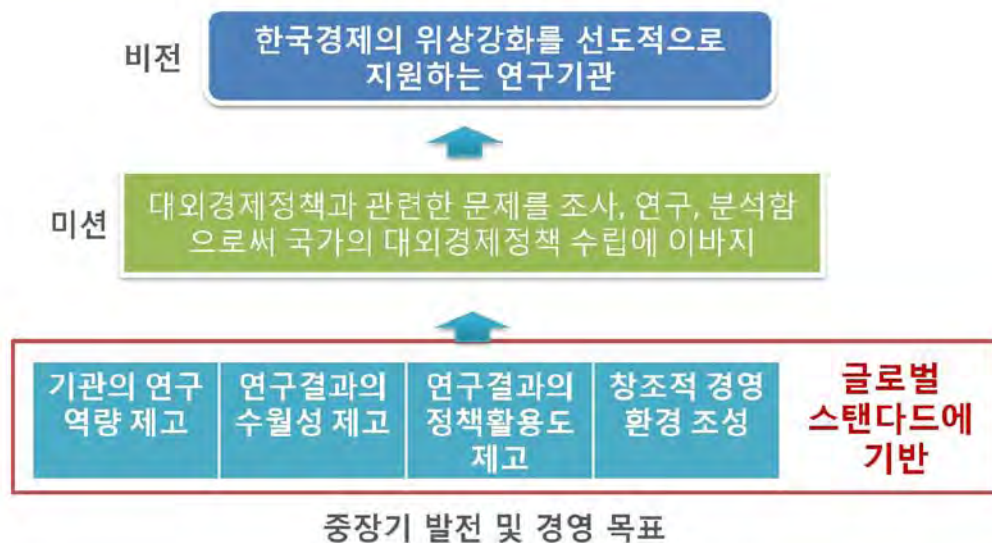
2015년 1월 22일::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포럼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2

01. 싱크탱크의 국제화란?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미션에 부합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2015년 1월 22일::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포럼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KIEP)

3

01. 싱크탱크의 국제화란?

국제화 \approx 현 글로벌 기준
한국 기준과 글로벌 기준 중 더 탁월한 기준을 국제화의 목표로 삼아야 함.

국제화



연구역량 제고	연구결과의 수월성	연구결과 정책활용도	창조적 경영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연구 • 다양한 해외기관과의 교류 • 우수연구인력 초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공동 발표회 • 해외기관 용역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지역 연구기관과의 협동연구 강화 • 국제 세미나에서 발표 및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 조직문화 구축 • 기관운영의 안정성 제고

01. 싱크탱크의 국제화란?

KIEP의 국제화 사례

KIEP-ILO-SNU 공동 세미나

Income Inequali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Sustainable Growth: Dialogue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국제노동기구(ILO)와 공동 연구 수행
- 2014년 12월 10일 ILO, 서울대와 공동 세미나 개최
- ILO, OECD, IMF, G20 Sherpa Office의 전문가들과 '국제기구와의 대화' 세션 개최

통일편익비용분석 세미나

Cost-Benefits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o Neighboring Countries-U.S., China, Japan, and Russia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4개국 연구자가 한반도 편익의 비용 분석 연구
 -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Marcus Noland
 - 중국: 베이징대 한국연구센터 부원장 Jin Jingyi
 - 일본: 히토츠바시대 경제연구소장 Kyoji Fukao
 - 러시아: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극동문제연구소 한국연구센터 원장 Alexander Zhebin
- 2014년 9월 17일 4개국에 대한 한반도 통일의 편익, 비용 분석 연구 결과 발표하는 세미나 개최

01. 싱크탱크의 국제화란?

KIEP의 국제화 사례

Emerging Markets Conference in Asia

- 2014년 3월 J.P. Morgan이 주최한 “5th Emerging Markets Conference in Asia”에 KIEP 연구진이 발표하고 또 최근 신흥국 관련 내용 숙지
- 민간 투자 은행의 분석 기법을 정리하여 KIEP 지역 연구자들의 방법론과 비교함으로써 분석 방법 개선

Riksbank and IMF Joint Conference

Macroprudential Policy: Implementation and Interaction with other Policies

- 스웨덴 중앙은행과 IMF가 주최하는 컨퍼런스에 KIEP 연구진이 발표 및 토론에 참석하고 또 국제 거시건전성 논의 내용 숙지
- 우리나라 거시건전성 정책의 현황 및 그 효과에 대해 발표

02. 전세계 싱크탱크 보고서 순위 분석

02. 전세계 싱크탱크 보고서 순위 분석

한국 연구투자의 실효성

R&D 지출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나, 상품화 실적과 그로 인한
실질 수입은 저조
(2012년 R&D 투자대비 기술료 수입비중:
한국 2.89% 미국 10.73%)

국책연구원에 투입되는 한해 예산(2014년)

- 5개 경제 관련 연구기관
(무작위로 선정)

US\$250 million

* 출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02. 전세계 싱크탱크 보고서 순위 분석

국가	해당 국가 1위 싱크탱크 순위	2013 세계 50대 진입수(순위)	2014년 GDP 규모 (\$ Billions)	2014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
영국	2위 Chatham House	9 (2위)	2,847	16위
독일	12위 Transparency International	6 (3위)	3,820	6위
미국	1위 Brookings Institution	11 (1위)	17,416	1위
벨기에	6위 Bruegel	4 (4위)	527	28위
중국	20위 Chinese Academy of Social Sciences	3 (5위)	10,355	23위
인도	50위 Centre for Civil Society	1 (9위)	2,047	44위
남아프리카	56위 Food, Agriculture and Natural Resources Policy Analysis Network	-	341	52위
한국	54위 KIEP	-	1,449 (세계 13위)	26위
일본	13위 Jap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2 (6위)	4,796	21위
스페인	60위 Fundacion para el Analisis y los Estudios Sociales	-	1,400	39위

02. 전세계 싱크탱크 보고서 순위 분석

세계 150대 싱크탱크 중 한국 싱크탱크 순위

2013년

- KIEP 54위
- KDI 55위
- EAI 65위
- 외교안보연구소 79위
- 자유경제원(CFE) 103위

2014년

- KIEP 45위
- KDI 49위
- EAI 60위
- 외교안보연구소 77위
- 자유경제원(CFE) 103위

* 출처: GGTI Top Think Tanks Worldwide (U.S. and non-U.S.)



감사합니다.

KIEP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KDI 사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KDI 사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 KDI 1971년 3월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설립

1

▶ Harvard 대학이 원조사업 자문기관으로서 KDI 연구 자문 수행

• Kuznets 교수 등 해외 석학교수들 (20여명) KDI 방문하여 수석연구원들과 연구방법, 과제 선정 등 토의/지도

* Irma Adelman, Edward Shaw, Charles Frank, Gustav Ranis, Dwight Perkins 등

▶ 1972년 7월 첫 국제심포지움 (개관기념) 개최

• 12명 수석연구원들의 한국 경제 study 최초의 연구실적을 국내외적으로 검증받는 기회

* 발표 논제: 계량모형에 관한 논제 4명, 생산성에 관한 논제 3명, 산업계획과 산업정책에 관한 논제 3명, 국제경제 2명

<Box 1> KDI 설립 직후 1년간 유치한 수석연구원

2



구본호 박사



김대영 박사



김영봉 박사



김완순 박사



김적교 박사



송병락 박사



송희연 박사



이규식 박사



남우현 박사



박종기 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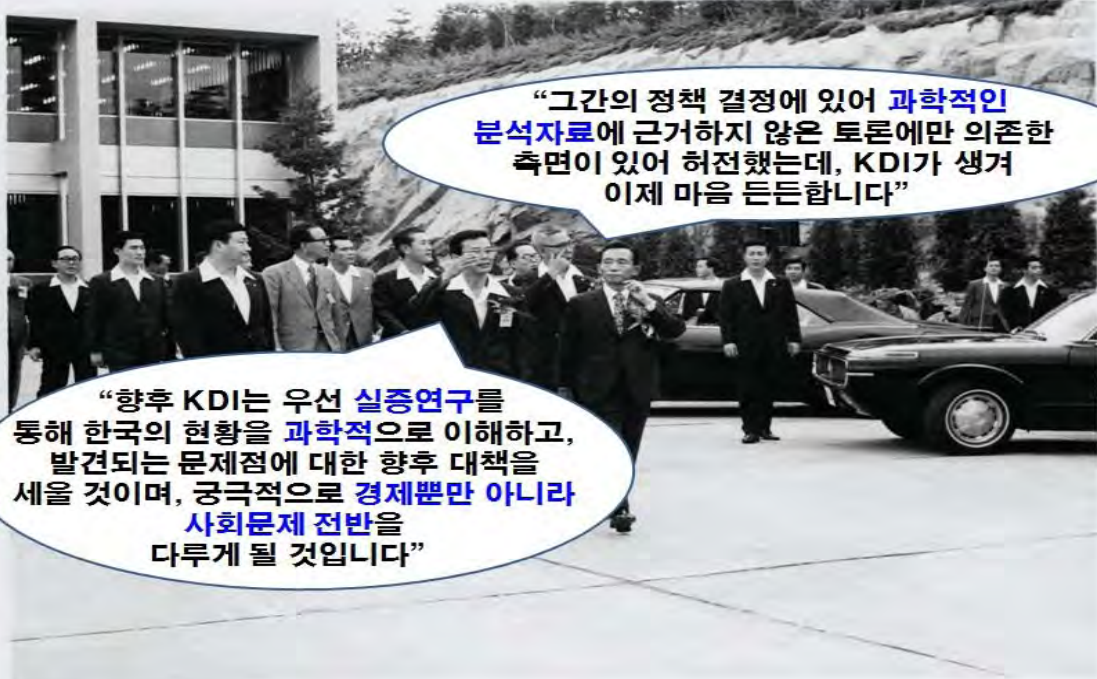


주학중 박사



홍원탁 박사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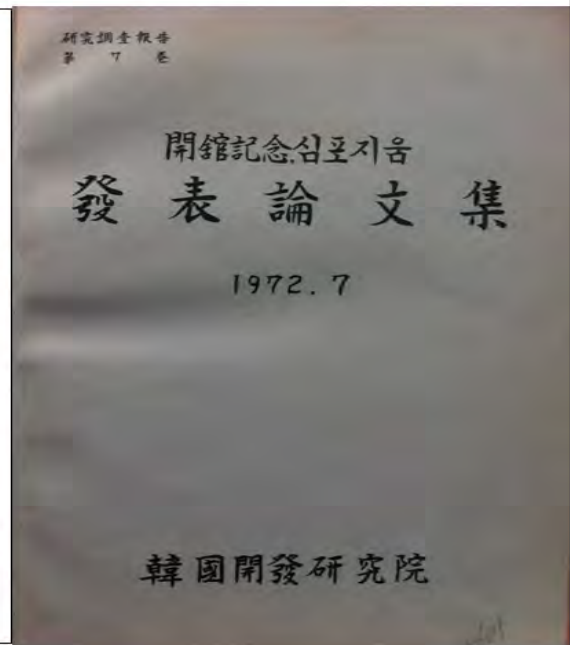
“그간의 정책 결정에 있어 **과학적인 분석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토론에만 의존한 측면이 있어 허전했는데, KDI가 생겨 이제 마음 든든합니다”

“향후 KDI는 우선 **실증연구**를 통해 한국의 현황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을 세울 것이며, 궁극적으로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전반**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Box 2〉 개관 기념 국제심포지움 발표논문 (1972년 7월)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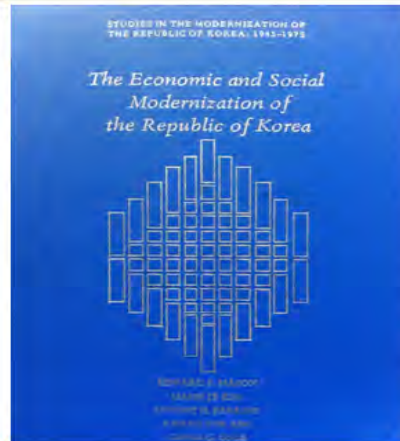
1. 한국의 외환정책: 구본호
2. 광공업 **노동생산성** 지수 구축: 김대영
3. 총자원예산을 위한 총량모형: 김영봉
4. **간접세** 수입 추계모형: 김완순
5. 수출산업의 **생산성** 분석: 김적교
6. 제조업의 기업집중도와 시장성과: 남우현
7. **직접세** 수입 추계모형: 박종기
8. **산업간 연계 계획** 및 총량 모형: 송병락
9. **분기별 거시 예측** 모형: 송희연
10. 제조업, 전기, 교통부문에 있어서
생산요소의 기여도 분석: 이규식
11.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조세 및
보조금 정책: 홍원탁
12. 월남전 및 한일 국교정상화가 196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주학중



□ Harvard – KDI 한국 경제 사회의 근대화 과정 연구 6

1945년 해방 이후 3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미 원조의 역할을 평가하는 공동연구

- KDI 측 20여명, Harvard 측 14명 학자가 참여, 12권 출간
- 예산: 외화부문 USAID **46만달러** (국내 비용은 KDI 부담)



IDEP 제1차 국제연수 1982. 6.1~12 7



1982년 이후 160여개국 약 8,000명의 개도국 공무원들 대상으로 국제연수 실시

IDEP 국제연수 산업시찰

8



□ KDI 설립 당시 인사제도 및 보수수준: KIST와 동일

9

▶ 수석연구원에 대한 계약제

- 초임 수석연구원의 계약기간 2년, 그 후 3년마다 재계약

▶ 수석연구원 보수 : 우수 두뇌에 대한 특전

- 1호봉에서 10호봉으로 차등화. 대학교수의 같은 급수보다 **3 배 이상** 높은 수준. 우수 연구결과 창출하면 고액의 **장려금**
- 귀국시 가족과 본인 항공료/이사비용 USAID 자금으로 지원. 외국인 전용 아파트 임대 무료 지원.

▶ 대졸 연구원에 대한 해외연수 기회 부여 (USAID 지원)

- 1973년부터 근무성적 평가하여 **우수 연구원 미국 유학**. 공채 1기 12명 중 10명 미국 석/박사 학위 취득
- 연구원 보수도 당시 처우가 가장 좋았던 은행원의 급여에 비 해 상당히 높은 수준

□ 향후 KDI 국제적 역할 강화방안

10

- ▶ OECD, IMF, World Bank 등과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 우수 기구와의 joint research를 통하여 연구의 질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임과 동시에 세계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
- ▶ OECD 등 국제기구 파견 등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 수준의 연구역량 강화
- ▶ KSP 자문사업 등을 통해 research-driven knowledge sharing 추진
 - 한국의 발전경험 사례 심화연구와 정책 영향평가 (impact evaluation) 연구를 강화

세션 2.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한 국내 기반 조성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원장

1. 한국 싱크탱크 유형

1) 정부출자형 국책 싱크탱크(경인사 26+지자체 연구소):

생태계 위치: 정책연구 생태계에서 주요 공급자

- 큰 지출과 많은 사업으로 연구인력이나 지출 등 총량 규모에서 국제적 수준
- 정부가 주요 고객으로 재정 안정도 높으나 연구 참신성과 자율성 한계
- 재정 지원하고 상품 사주는 정부라는 고객있어 경쟁하지 않는다.
- 사회적 연계도 낮아 사회적 영향력 면에서는 중간 정도
- 몇 개의 기관 외에는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국제적 인지도 낮음.

2) 대기업출자형 싱크탱크 (삼성, 현대, LG경제연구원과 전경련산하 한국경제연구원 등)

- 기업이 고객으로 공익연구 활발하지 않다 → 아산정책연구원 예외적
- 기업형이어서 시장친화적 정책연구로 경도된다
- 정부와 시민사회 양편 모두로 네트워크 약하다

3) 정당 운영 싱크탱크

- 정당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나 예산이나 전문성 면에서 국책 연구기관보다 취약하다
- 독일처럼 정당 운영 싱크탱크 발전하려면 정당정치가 정책플랫폼 중심으로 발전되어야 가능. 현재와 같은 정치체제 하에서는 정부산하 국책 연구기관 대비 경쟁력 확보 어렵다.

4) 시민단체에서 성장한 싱크탱크

- 영세하며, 재정난에 허덕인다
- 이념지향, 운동지향 성격이 강해 실증적, 전문적 정책연구력 약하다.

5) 학계, 언론, 기타 독립형 민간 싱크탱크

- 대학내 연구소는 소규모로 주로 외부 연구비 받기 위한 창구로 활용되는 측면. 책임맡은 교수 역량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며, 결과물도 학술적인 경우 많아 정책파급력 없음. 그러나 대학에서 시작했으나 전국적 평판과 영향력 확보한 연구소 존재. 경남대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등 수개 연구소는 학술지 발간에서 나아가 국제적 네트워킹으로 나름 경쟁력 확보.
- 언론기관 산하 연구소 급증하는 추세. 그러나 자체 연구인력 충원없이 미디어의 사회운동 방향에 따라 간판이 달라지는 취약성.
- 세종연구소나 동아시아연구원과 같은 순수 민간독립 싱크탱크 존재. 동아시아연구원은 교수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연구원으로 국제화, 네트워크화로 성과 보임. 네트워크형 전문 연구기관으로 가능성 제시.

2. 싱크탱크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돈, 전문성, 국제화 세 가지가 연구기관 기반조성의 필수요소

1) 연구 재정력 신장

-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 출자 연구기관 외에는 모두 재정난.
- 재정 확보 없이는 전문가 채용 불가능해 연구력 없다.
- 누가 연구를 위한 돈을 지불할 것인가?

한국 정부 부처들은 정책 아이디어 공급원을 다양화시켜 경쟁시켜라:

산하 국책기관만이 아니라 민간 연구기관 용역 더욱 활발히 주어야. 특히 연구재단은 대학 연구 지원 중심에서 연구기관 지원으로 다양화해야.

연구비 지원하는(grant making) 민간재단의 창립 시급하다:

대기업과 재력가들은 장학사업, 대학시설사업, 산하 연구소 지원 등 기존 틀에서 벗어나 정책연구 지원하는 재단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포드재단, 맥아더재단, 카네기재단, 게이츠재단, 리차드슨재단 등등 참조)

시민들도 연구기관에 기부하라:

이념이나 사회운동 지향이 유사한 연구기관에 회비 및 기부금을 지원하라

2) 연구인력의 전문성 확보

- 우수 연구인력이 연구기관보다 대학 선호하는 현상 점차 바뀌고 있다 (대학 학생 정원 감소로 교수인력 충원은 우수 대학 외에 별로 늘지 않을 듯,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할 수 있도록 급여 및 고용안정성 확보할 것)
- 좋은 아이디어 누가 잘 낼 수 있나?

새로운 정책분야와 이슈를 학습시킬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라

- ✓ 새로운 분야와 이슈에 능통한 전문 연구인력 양성 시급 (외교안보와 경제에 비교하여 날로 증대한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응할 연구기관 수 너무 작다.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에서도 새로운 이슈들 전문가 공급 절실)

공직 경험자를 싱크탱크에 채용하라

정책 전문가 풀을 언론인, 기업인, 법조인으로 확대하라

- ✓ 정책 연구인력은 현장 실무경험 중요 (정부와 연구소를 오가는 미국식 리볼빙도어 유용하다. 정책자문 역할이 교수나 연구자 같은 지식소유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 → 기업인, 언론인, 시민운동가 등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을 공공정책적극적으로 정책서클에 참여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금융계에 오래 종사한 전문가가 금융정책 참여토록)

3) 연구기관의 국제화 시급

- 경제나 안보정책에서 서구 특히 미국 기관들로부터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신 분석하는 일방적 생산과정을 갖고 있다.
- 국내 연구기관 해외 연구기관과 네트워킹 취약. 돈 많이 쓰는 일회용 국제회의를 넘어서는 다양한 네트워킹 필요

콘텐츠 좋은 연구 결과물 해외로 적극 송신하라

- ✓ 적어도 한국문제, 한반도문제에서 정책 아이디어 국제적 경쟁력 확보해야.
- 지역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력 신장 필요.

영어로 정책연구 결과물 세일즈해야 국제적으로 알려진다

- ✓ 정책연구 결과물의 영문화 작업이 시급하다
- ✓ 좋은 정책도 영어로 소통되지 않으면 국제적 영향력 없다.

세계로 넓게 네트워킹하라

- ✓ 미국 중심에서 중일은 물론 유럽 주요국과 인도, 브라질 등 부상하는 국가들의 연구기관들과 네트워킹해야 새로운 정책 어젠다와 이슈를 알고 준비할 수 있다.

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가?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인가?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1. 왜 싱크탱크인가?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화와 형식적 민주주의 도입이라는 근대적 과제 두 가지를 달성한 이후 문제는 더 복잡해졌다. 문제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며, 문제 해결도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최소한 사회 변화라는 측면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현재의 교착상태는 (1) 사회 시스템 변화에 관한 아이디어의 기획, (2) 컨센서스 도출, (3) 실행의 세 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의제는 대체로 이런 세 가지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고 실현되지만,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이런 프로세스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 것이 사회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다.

첫째,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의제(big idea)의 기획은 과거 정부와 시민운동의 전유물이었다.

산업화시대 대형의제는 정부가 앞장서 이끌었다. 경제기획원, 재무부,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경제개발계획으로부터 개방과 자유화까지 국가적 대형의제를 처음부터 고안하고 입안했다.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 개혁과 관련된 의제는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기획하고 실현시켰다. 참여연대는 재벌개혁과 사법정의와 관련된 의제를 여럿 기획해 결국 정부가 받아들여 실행하도록 했다. 경실련은 공정경쟁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기획을 성사시켰다.

하지만 현재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대형의제 기획력이 과거보다 훨씬 낮아진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경제부처의 권능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기획기능은 선출직 중심의 정치권으로 점점 더 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민주화 이후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정당 싱크탱크들은 여전히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시민단체들은 인적 물적 열악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 대 반민주 대결구도가 존재하던 시대에 있던 시민사회의 도덕적 우위가 상대적으로 약화하면서 이런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할 힘도 약해졌다.

다시 말해 사회 변화를 이끄는 대형의제를 기획할 주체가 불분명하다. 여기서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이 필요해진다.

둘째, 컨센서스 도출 수요는 비교적 최근에 생겨나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표면적인 격한 대립 속에서도 정책결정자 그룹 내부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던 과거와 달리,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며 격화되고 있다. 이런 대립은 2012년 대통령선거를 거치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2년에는 한국사회에서 처음으로 미국식 양당제와 비슷한 대통령 선거 양상과 결과가 나타났고, 2013년에는 결과적으로 그 양상과 결과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어 있다. 한 마디로 정치적 반대편과는 대화와 토론이 불가능한 상황이 고착되고 있는 것이다.

단적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 과거 같으면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지식인과 시민사회 전체가 천착하며 문제 해결을 이끌어낼 만한 이슈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격랑 속에 당파적 이슈로 여겨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명백하게 사회를 후퇴시키는 행위라도, 이제 전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끌어내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반대로 명백하게 사회를 진보시키는 이슈라도, 전사회적 컨센서스가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사회 대부분의 이슈가 이렇게 되어 버렸다. 크게 보아 합리적 토론이 사라지고, 보수 진보라는 양대 정파의 이해관계와 연결되면서 쉽사리 정파적 이슈로 전락하고 만다. 양쪽 모두가 해법에 천착해 참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합리적 토론 플랫폼’이 필요해지는 것은 그래서다.

셋째, 기획된 의제가 실행되는 매커니즘은 여전히 정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에 견줘 정부의 기획력이 약해진 상태라 전반적으로 새로운 대형의제 아이디어가 실행으로 옮겨지기 어려운 상태다.

정책생태계는 정부 주도 일변도이던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많은 정책결정 프로세스에 외부전문가 내지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가 들어간다. 문제는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실행역량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는 일상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있다. 정책생태계 거버넌스에는 개별집단의 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이들이 주도하는 경우도 많다. 의견수렴과정이 오히려 새로운 정책의 도입을 가로막는 일이 많아지는 것도 그래서다.

이런 배경 아래, 대형의제 기획능력이 있으며 다양한 세력의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2. 한국의 싱크탱크 지형

한국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싱크탱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접근은 몇 가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정부의 정책싱크탱크들이 있다. 1971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설립을 시작으로 정부 각 부처와 관련된 국책연구소들의 설립이 이어졌다. 국책연구소 중 경제 인문사회 분야 정책싱크탱크를 관리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는 2013년 현재 26개 국책연구소들이 속해 있다. 국책연구소의 재무구조는 소관 부처 연구용역 의존성이 높아, 재무구조상으로 봐도 정부부처에 보조적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각 광역지자체는 각각 자체 정책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다. 1990년 충북개발연구원을 시작으로 설립되기 시작해, 현재 15개의 시도연구원들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은 대구경북연구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이들의 관심사는 대체로 주요 국책사업의 유치나 중앙정부 예산사업 유치 등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지역 자체의 중장기 발전 전략은 수립할 역량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요정당들도 싱크탱크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운영하는 여의도연구소,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정책연구원 등이 운영되고 있다. 정당에 주어지는 국고보조금의 30%은 의무적으로 정책연구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당비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정당 싱크탱크들이 총 연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연구소의 경우 인력의 상당수가 중장기 관점의 정책연구보다는 정당의 단기적 전략 수립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지지율 조사를 정당 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것도 주요 정당의 관행인데, 이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이런 공공부문 싱크탱크에 필적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 기업 싱크탱크들이다. 1986년 삼성경제연구소 설립을 필두로 LG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이 설립되었다. 주요 대기업과 은행 증권사 등이 자신의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인력, 예산, 영향력 등에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대표적 싱크탱크로 꼽힌다. 다만 삼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준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 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등장한 참여연대와 경실련과 환경운동연합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경제 정치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대안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옹호활동을 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제도개선을 끌어내기도 했다. 이들 시민단체에도 참여연대의 참여사회연구소, 경실련의 경제정의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의 시민환경연구소 등 부설 싱크탱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소의 독자적 정책생산 활동은 부족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시민단체 정책생산 역량의 한계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고, 국책연구소나 기업연구소가 집권세력이나 모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며 편향된 연구결과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독립 민간 싱크탱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회원들에게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에 대한 삼성의 입장을 기술한 자료를 배포한 사건과,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우리는 싱크탱크가 아니라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마우스탱크’라고 고백했던 사건 등이 불거지면서 이런 분위기는 더 깊어졌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를 타고 만들어지거나 성장한 새로운사회를위한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희망제작소 등의 한국 싱크탱크들은 각각 나름의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분야에서는 독보적 콘텐츠를 내놓았고 희망제작소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등 풀뿌리 이슈에 대해 적극적 정책 제안을 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원과 인력의 절대적 제약 속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전체적으로 이들 싱크탱크들 역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대형의제(big idea)를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정파를 넘어선 컨센서스를 만들어내고, 실행으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을 만드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3. 평가 및 향후 과제

과거 민간 싱크탱크를 고민하는 사람들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정치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가’와 ‘어떻게 하면 구체적 정책을 만들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독립성보다는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세력이 어떻게 합의된 합리성을 만들어가도록 토론 플랫폼을 만들어 갈 것인가’와 구체적 정책의 생산보다는 ‘의미있는 대형의제에 아이디어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로 전환되었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즉 전문적 정책 공론장으로서의 민간 독립 싱크탱크 역할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다. 정파 사이의 정치적인 대립이 점점 더 확산되면서 이런 전환은 더 분명해질 것이다.

국내 민간 독립 싱크탱크 생태계 활성화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무엇보다 안정적 재원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에 있다. 두 가지 제약요인은 결국 점점 더 영역을 넓히면서도 합리적 토론 플랫폼 역할을 역동적으로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국책, 지자체, 정당연구소의 문제로 귀결된다.

재원의 경우 부처 및 지자체 정책연구 예산이 소관 부처 및 지자체 연구소에서 폐쇄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다. 정당의 경우에도 국고보조금이 특정 정당 전략수립에 활용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인력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한 국책, 지자체, 정당연구소들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인재를 흡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앞서 서술한대로 민간 독립 싱크탱크를 강화시키는 것은 전문적 정책 공론장이 사라져가고 있는 지금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큰 틀에서 국가 정책지식생태계를 그리면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강화를 주요 아젠다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 첫 걸음으로는 정부 및 지자체 싱크탱크가 소관 부처 및 부서의 조사부 역할로 전략하게 만드는 지배구조 및 위탁구조, 정당 싱크탱크가 정당 지도부에 종속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지배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며 제 3지대에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 민간 싱크탱크로 재원과 인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국의 정책생태계가 최소한의 건전성을 지켜갈 수 있을 것이다.

싱크탱크와 관련된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생산되고 실험되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를 밝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민간 독립 싱크탱크의 발전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싱크탱크 영역간 협력의 첫 단추를 꿰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모델을 적극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브루킹스나 헤리티지 같은 전통적 싱크탱크나,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간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나 민간 영역의 실행사업을 상당부분 포괄하는 미국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혁신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아쇼카: 공공을 위한 혁신가’(Ashoka: Innovators for the Public) 같은 기관을 탐구해 볼 필요도 있다.



한경BUSINESS